

마트 '코로나 불황' ... 백화점 명품 '코로나 호황'

지난해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 1조6054억...전년비 580억 줄어 '보복소비'에 명품 매출 21% 늘고 골프용품 15%·가전 43% 증가

지난해 광주 백화점 3곳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12개 대형마트 전체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주 백화점은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업계는 10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

4일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광주 1조6054억원·전남 7749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5%(-580억) 감소하고 1.2%(96억원) 증가했다.

전국 대형소매점 매출에 대해 광주는 2.6%, 전남은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은 최근 6년 이내(2015~2020년) 최저를 기록했다.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은 지난 2015년 1억7056억원에서 1억7256억원(2016년), 1억7245억원(2017년), 1억7174억원(2018년), 1억6634억원(2019년) 등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남 대형소매점 매출은 전년(7653억원)에 비해 95억 5500만원(1.2%)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 매출 가운데 백화점(8392억원)과 대형마트(7662억원) 두 부문 모두 최저점을 찍었다.

특히 광주 12개 대형마트 매출은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생필품 수요가 늘면서 전국 대형마트 매출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형마트 매출은 세종이 14.7%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경기(7.0%), 부산

(4.3%), 서울(3.9%), 경남(2.7%), 울산(2.4%), 대전(2.0%), 제주·대구(각 1.6%) 등 코로나19 타격 속에도 오름세를 보였다.

광주 한 대형유통매장 관계자는 "광주 5개구(區)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높은 지역인 북구와 수완지구 등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일어난 악재 영향을 받았다"며 "확산 초기 '포비아'(두려움 증세)에 가까웠던 지역사회 분위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 백화점 3곳 총 매출은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백화점 매출 감소율은 5.0%로, 전국 평균(-9.9%)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년에 비해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경남(-17.8%)이었고, 경기(-12.1%), 대전(-11.7%), 대구·울산(각 -11.6%), 서울(-8.3%), 부산(-6.6%) 순이었다. 광주 감소율은 전국 8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광주 백화점의 예상 밖 선전에는 보복소비가 반영된 '해외명품'의 인기와 '집콕' 생활을 위한 가전·가구 수요가 영향을 미쳤다.

(주광주신세계는 지난 한 해 점포 전체 매출이 전년보다 1% 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화장품(-17%), 여성(-20%), 남성(-7%), 스포츠(-8%) 등 대다수 부문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명품의 인기는 꾸준했다.

이 점포의 해외명품 매출은 전년보다 21% 증가했고, 해외여행이 막힌 소비자들 사이에서 골프용품(15% ↑) 수요도 늘었다.

지난 2019년 여름 새로 문을 연 생활전문관이 고객을 끌어들이 생활가전 매출이 43% 증가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매출이 12% 감소하며 코로나19 부진을 반영했다.

해외명품(19%)과 가전·가구(11%) 등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아동(-12%), 레저·스포츠(-15%), 여성·남성의류(-24%) 등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거뒀던 소문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광주지역 롯데아웃렛 평균 매출은 19%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87.55 (-42.13)
↓ 코스닥	964.58 (-6.11)
↑ 금리(국고채 3년)	0.984(+0.006)
↑ 환율(USD)	1118.50(+3.60)

"상생! 팔도장터"

한전 임직원, 비대면 장터서 1억4000만원 상당 구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진행한 '상생 팔도장터'에서 1억4000만원 상당 특산물을 구매했다.

한전은 지난 달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개최한 비대면 형식 '상생 팔도장터'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부터 열린 팔도장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 상생하고 농수산 특산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 금융장터를 열기도 했다.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유통 마진을 줄였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영광 전보리굴비' 세트가 다시 이름을 올렸고, 흑산도 홍어가 추가됐다.

상품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현장 판매 대신 '사전 예약 후 사후 배송'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전 측은 명절 전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번 장터는 온누리상품권 결제가능 품목을 신설해 결제 방법을 다양화했다. 전통시장·사회적경제기업·지자체 추천 농특산물 등 참여 업체를 확대했으며, 구매 참여 대상을 한전 뿐 아니라 자회사(한전FMS·한전MCS·한전CSC) 직원까지 넓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에 은행권 비대면 전환 '속도'

NH농협, 모바일 전용 아파트 대출 광주은행, 토스와 디지털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은행권의 비대면 업무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올해 10대 혁신과제로 '전략적 디지털 금융 추진'이 지난 달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발표됐다.

올해 디지털 금융 혁신 행보의 하나로, 지난 달 모바일 전용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상품인 '프라이머 플러스'를 선보였다. 또 (주)바리퍼블리카와 협약을 맺어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 앱에서 광주은행 입출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모바일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최근 비대면 전용 'NH모바일아파트대출2.0'을 출시했다.

이 대출상품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NH스마트뱅킹과 윌뱅크 등 모바일로 필요한 서류를 내고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이다. 임차인이 없는 본인 소유(부부 공동명의 포함)의 아파트를 이용해 영업점 방문이나 소득증빙서류 제출 등 절차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가능금액과 금리도 조회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은 최대 5억원,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억원이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할부상환과 원리균등할부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년 초과 33년 이내(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다.

우대 금리는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0.25%포인트 ▲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0.25%포인트 ▲자동차 0.10%포인트 ▲비대면 신청우대 0.20%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4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최저 연 2.48%



광주은행 송중옥 은행장과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 (회장 김홍균 남산산업 회장)은 4일 광주 지역아동센터 2곳을 찾아 성금과 가전제품,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1월 말 기준)까지 적용된다. 상호금융권도 비대면 자산관리 추세에 맞춰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하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상호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농협상호금융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달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금융 기관 중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 허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모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융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개인 종합자산관리(PFM) 서비스를 강화한다. 농협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와 오픈뱅킹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퇴직급여 미리 신청하세요

사학연금 8~23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전청구 제도'를 활용해 지급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이 집중되는 시기에 퇴직이 확정된 장년 퇴직자와 이달 말 명예퇴직 예정자를 위한 '사전급여 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정기 퇴직이 발생하는 2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과 12월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교직원은 2월 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 명예퇴직자 그리고 일반 퇴직예정자이다. 청구기간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